

남영전구 수은 중독 인근 공장 전파 우려

최다 검출된 동쪽 화단 철거 작업장 환풍기 타고 확산 전문가들 “인접한 공장 근로자 노출 가능성 크다”

남영전구의 집단 수은 중독 사태는 철거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전구 부지 6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곳의 경계에 A업체 공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철거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는 물론 영광등 제조작업을 한 퇴직 근로자, 인접 사업장 근로자까지 전면적인 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인 ‘수은’에 대한 해당 사업체와 관계당국의 부실 관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근로자 집단 수은 중독 사태를 일으킨 남영전구 사업장 부지 내 토양 6곳을 분석한 결과, 2개 지점에서 기준치(토양환경보전법)를 웃도는 수은이 검출됐다.

수은함량이 기준치(공장지역 20mg/kg)를 초과한 지점은 공장 동쪽 화단과 공장 북쪽 경계로, 각각 토양 1kg당 42.80mg,

37.18mg의 수은이 검출됐다. 하지만, 이를 공장지역이 아닌 기준이 엄격한 주거지역(4mg/kg)으로 적용하면, 기준치를 무려 10배 이상 초과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가장 높은 수은함량이 검출된 지점은 철거작업과 수은제조가 이뤄졌던 작업장의 배출구 바로 옆 부지로 드러났다. 이는 설비 철거작업에 동원됐던 근로자뿐만 아니라 바로 옆 A업체 공장 등 인접지역 근로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높게 검출된 곳인 동쪽 화단의 경우 설비 철거 작업장에 설치된 환풍기(기준 3개에서 6개로 추가)를 타고 수은이 확산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 곳에서 10m가량 떨어진 A업체 공장 근로자들도 수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들 근로자들의 건강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의학 전문가들은 철거 작업뿐만 아니라 남영전구가 수은을 이용해 형성되는



생산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환풍기를 통해 지속적인 수은 확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광주시 조사 결과, 남영전구 사업장 내 배수설비 맨홀에서 수은이 확인된 만큼 배수설비를 통한 하천 유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철거 작업 과정뿐만 아니라 형성등 제조 작업에 투입됐던 퇴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조사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갑 조선대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철거작업 중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환풍기를 타고 기화된 수은이 확산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인접 공장 토양(배수설비 퇴적 토양) 조사와 함께 인접 공장 근로자, 남영전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한빛원전 관막음 허용률 결국 상향조정

안전 위험 주민 반발 속 원자력안전위 18% 수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전 운영 변경 허가(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 상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 측은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결함이 생기더라도 8000여개의 전열관 중 18%까지 막아도 원전 가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한빛원전 운영자인 한수원 측은 관막음 제한 규정은 경제적 관점에서 설정한 기준으로, 설계 당시 8%로 제한했던 증기발생기의 관막음 허용률을 18%로 완화해달라고 원안위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영광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들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관막음을 제한 규정이 안전성과 밀접한 사안인데다,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에서 사고·고장도 잇따르자 관막음을 제한한 원화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미국 등 원전 선진 국가에서 수십 년 전부터 사용을 중단한 인코넬 600으로 제조된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는 그간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원자력 전문가 등으로부터 꾸준히 위험성 경고를 받고 있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뜨겁게 달군 냉각수에 의해 증기를 생산, 터빈을 돌게 하는 설비로 방사성 물질이 순환하는 원전 핵심 설비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조석래 회장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구형

효성측 “부실자산 떠안은 것...사익 추구 없어”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신뢰와는 상반없는 행위를 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6) 사장도 징역 5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효성측 변호인은 “조 회장은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한미·한일 재계회의 의장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한 점, 과거 수출주도의 경제발전 당시 발생했고 삼성·LG·현대 등 모든 기업이 같은 상황이었던 점, 담담암·전립선암·부정맥 등 건강이 악화돼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효성 사건이 모두 15~2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현재의 법적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혹하

다는 시각이다.

효성은 1970년대부터 누적된 부실자산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효성물산을 IMF 때 정리하려 했으나, 금감원과 은행의 요구로 우량회사와 합병함으로써 효성물산의 부실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또 부채비율 200%를 맞추려는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부실자산을 공개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가공자산으로 대체한 것일 뿐,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했거나 지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며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없이 자력으로 부실을 정리하면서 근로자 2만 5000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파넥스·타이어코드 등 글로벌 납품 제품을 만들어내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와 임직원,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백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백마산 승마장 건축주 “허가취소 불복 행정소송”

광주시 서구 백마산 개발제한구역 내에 승마장 건축을 추진하던 건축주가 서구청의 허가취소와 복원명령에 불복, 이의제기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구 서창동 백마산 승마장 건축주 측은 “구청이 허가취소 처분의 주된 사유로 밝힌 환경영향평가 누락 부분은 보완 사항이지 허가취소 사유는 아니다”며 “이에 대한 불복 방안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고 9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9월 23일 허가 과정에서 불법 등의 사실이 드러난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건축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이날 승마장 건축주에게 허가 취소 통보서를 발송했다. 승마장 건립 공사 과정에서 임야를 벌채하고 토사를 유출한 해당 부지 복원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편, 승마장 건립이 추진된 부지는 애초 구유지였으나, 김중식 전 서구청장 임기 말인 2014년 구청이 매각을 시도해 유찰이 반복된 끝에 현재 승마장 건축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된 후 승마장 건립 허가까지 나자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화산 농심 비 야적시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소속 회원들이 9일 오후 광주시청 진입로 앞 도로에서 쌀수입 중단과 정부 수매 확대 등을 요구하며 비 포대를 쌓아올리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월 수익 (1,02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7억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대지-180평, 건물-470평)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매가 7억

법률경매

-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건 904평)
감정가 35억4천 → **28억3천**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룬 54개-8층, 주택겸사무실)
-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악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키지사 부근
- 전남 화순 (토2233평,건1440평) (롯데슈퍼마트)
감정가 77억 → **최저가 27억 8천**
→1층(판매장,사무실) 2층(판매장,사무실등)
☆롯데슈퍼마트,키즈카페,파리바게트등등
- 동구수기동 (토130평,건320평)
감정가 10억7천만 → **최저가 6억**
11층 (생활시설,창고) 2층~3층(소매점)
4층~5층(사무실)
- 북구 유동 (토 240평, 건 818평)
감정가 24억3천만 → **최저가 17억**
1층(점포) 2층~5층(사무실) 지하(주차장)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0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천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010-7384-7800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통건물)

- 수원지구 (우미린A.P.T 앞) 4층건물 (대지 144평,건 280평) → 매가 17억
-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렛 (월수익 1,000만 ~ 보2억,용6억) → 매가 20억
-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대지 122평,건243평) → 매가 28억
- 광신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월6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나주 삼영동 2층 상가 매매 (나주혁신도시 10분,나주시청2분) (보2천,월200만) → 매가 3억
- 상무지구 정연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1천,월6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 3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보5백,월 45만 - 임대완료) → 매가 8천 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 옆 (용4천)(보5백,월 42만) →매가 7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용2천)(보3백,월33만) →매가 4천5백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시설, 통건물)

-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1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 용평지구 원룸 (미래드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 광양 광명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매가 3천8백만
- 서구 영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학원출구 3분 (용2천)(보3백,월32만) →매가 3천6백만